

## [ 종합·해설 ]

# 주가조작 '이명박 無혐의' 가닥?

검찰 'BBK 의혹' 이명박 후보 서면 조사  
막바지 자금 추적에 총력... “끝까지 봐야”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범행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후보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이 후보에 대한 '무혐의 내지 불기소 처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흥준표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우리는 검찰에 할 도리는 다했다”고 말해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씨 기소 시한(12월 5일)을 불과 이를 넘겨둔 시점이고, 이 후보를 기소하려면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면조사 의미는=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서면조사는 통상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절차로, 반면 소환조사는 기소를 위한 절차나 수순으로 인식된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은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기소를 하건 무혐의 처분을 하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 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최재경 부부장검사) 소속 검사별로 이 후보에게 직접 질문할 사항을 취합한 뒤 이 후보 측에 보내 지난주말 의견서 형식의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무혐의’ 가닥 잡았나=김 차장검사는 “(이 후보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며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다스나 BBK의 설립부터 증자, 자금인수, 배당 등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와 옵션밸enches 주가조작 전 과정의 자금흐름을 지금도 보고 있고 김씨를 기소하는 마지막 시점까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수사 방식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검찰이 이미 수사를 끝내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고 하면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체진 검찰총장이 취임식 때 강조했던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겠다’는 언급은 의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사와 추적 가능한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 이 후보의 돈이 흘러다닌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명박의 돈’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자금이 흘러다닌 흔적을 찾지 못했으나 김씨를 기소하는 시점까지 그런 정황이 잡히지 않는 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 “정상명, 1위 후보 기소 어렵다 말해”

신당 장영달 국민대통합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국민대통합위원장은 3일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중요한 인사와 식사를 하면서 ‘검찰이 지지를 1등으로 나오는 후보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모든 자료와 근거가 확실한데, 원래 (이명박 후보가) 후보가 아니었다면 진작 소환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이 후보가 BBK와 관계없다고 나를 깨닫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말하고 “저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증거가 분명한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모든 자료와 근거가 확실한데, 원래 (이명박 후보가) 후보가 아니었다면 진작 소환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이 후보가 BBK와 관계없다고 나를 깨닫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BBK 사건 수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3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의회 포괄 사업비 심의 파행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도지사 포괄사업비 삭감을 주장하고 파행을 겪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행정혁신국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알려진 ‘자치단체 자체 보조’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충돌로 심의를 하지 못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는 올해 6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지사가 시·군을 순회할 때 분배해 주는 예산으로 해마다 선임성이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심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홍재(순천2·양승일·비례) 의원 등은 ‘도지사의 선임성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포괄사업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대통령합민주신당 송범근(담양2) 의원 등은 삭감에 반대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들 의원들은 설전을 끝에 마이크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면살잡이를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결국 이날 ‘자치단체 자체 보조’에 대한 심의는 보류됐다. 삭감을 주장한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도지사가 이 예산을 선심용으로 쓰고 다닌다’고 반대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도의원들과 상의 없이 사업비를 사용한 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에도 도지사 포괄사업비는 66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22억 원이 삭감됐었다.

/정호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백도선 후보는 3일 지역내 복지관과 미화원 집결소 등을 찾아 “낙후된 장흥을 살릴 적임자를 지지해달라”며 호소했다. 백 후보는 이어 노인 요양시설인 소망원과 중앙로 일대 읍식점을 돌며 지지를 당부했다.

/정호기자 who@kwangju.co.kr

# 이명박 후보 유세장서 계란 맞아

## 한나라당 경호비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3일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이 던진 계란에 맞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앞에서 가두 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에 오르다 승려 복장을 한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던진 계란에 상체를 맞았다.

이 남성은 경호원들에 의해 붙잡혀 즉각 경찰에 넘겨졌고, 더 이상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 후보는 코트의 가슴과 왼쪽 허리 부분에 계란이 묻은 채로 유세를 계속했다.

이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은 서모(55)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경찰은 일단 서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서씨는 이 후보에게 계란 2개를 던지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 40여장을 뿐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 씨가 왜 이 후보에게 계란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즉각 경호비상이 걸렸다.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계란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거리유세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승려 복장의 인물(원내)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투척 자체 보다는 유세현장에서 후보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보다 철저한 경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경호팀은 이날 계란투척 사건을 즉각 경찰정에 보고하는 한편 만일의 주가사태에 대비해 이날 하루종일 이 후보에 전담요원 1명을 붙여 극점경호에 나서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던 무소속 이희찬 후보가 30대 남자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아 입건된 바 있다. /연합뉴스

## 장성군수 후보 여론조사 공정성 공방

## 광주시의원 송태종 후보 토론회 제안

### 12·19 재·보선 현장

○…장성군수 재선거 후보들이 3일 지역내 한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문안을 놓고 신문사측과 공정성 공방을 벌였다.

무소속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J신문이 지난달 26~28일까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후보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3명은 단순히 전·현직 직위만을 언급한 반면, 전 군수의 부인이 다른 후보에게만 사적인 가족관계까지 추가 설명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유도성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는 63.9%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신문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후보 인지도는 무소속 이정 후보가 69.3%,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종 후보 66.7%, 민주당 김홍주 후보 59.7%, 무소속 김양수 후보는 40.1%로 나타났다.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광주시의원 북구 3선거구 재선

##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이 솔직한 소비자 성장을 위하여 보증비를 398만 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아직도 이런 가격으로 낭비를 좌우하세요!

한국전력금사 앱리더 티켓팅

010-9469-9373

국민전기 062-673-4981

##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지니스 파트너 OHN J 체

한국전력금사 앱리더 티켓팅

Anych 062-942-1814, 1816